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7. 17.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신교통서비스과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사무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4770, 475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택시와 플랫폼,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,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「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,
 - 이러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실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,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한편, 벤처기업협회, 카카오모빌리티, 벅시, 코나투스, KST모빌리티 등 관련 단체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,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- 이번 개편방안은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이 아니라,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,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.
-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와 플랫폼 업계,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7.17, 매경, 아주 등) >

◆ 택시제도 개편방안 관련 관련업계 동향 보도

- ‘타다’가 말았다. 좌초된 모빌리티 혁신
- 코리아스타트업포럼, 국토부 택시 개혁안 수용하기 어렵다
- 벤처업계, ‘택시제도 개편’ 모빌리티 승차공유 허용 환영
- 마카롱택시, 국토부 상생안에 반색, 방향성에 동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박효철 사무관(☎ 044-201-47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